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을 준비하며

오은희 안녕하세요. 2021년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을 위해 2월 2일 첫회의를 하고 발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4월 6일에는 군포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군포예총 25년특별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총사와 각 협회사 정리 및 외부원과 청탁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의 좌담회는 군포예총 25년사를 정리하고 집필하며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나 재미있었던 일화를 이야기 나눔으로써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자연스럽게 말씀들 나눠주십시오. 우선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웅 예총회장, 최남희 집필위원장, 이진옥, 박소명 집필위원. 그리고 이숙진 사무국장과 이상훈 사무차장. 군포예술 편집위원인 이은영 군포문협 사무국장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강신웅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강신웅 군포예총 창립 25년을 맞아 2020년 예산을 확보해 2021년에 군포예총 25년사 발간을 준비했습니

다. 군포예총 25년의 역사와 함께 군포예술문화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기록화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집필위원님들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이고 많이 힘드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제 임기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25년사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30년, 35년, 50년사를 기록할 때까지 군포예총이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 자신의 예술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은희 다음으로 군포예총 25년사를 준비하며 총괄책임을 맡으신 이숙진 사무국장께서 현황 및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진 우리가 2월에 첫 회의를 하고 발간위원회를 꾸리고 시작할 때는 이게 단순하거나 쉬운 일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십여 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25년이

기획특집 | 예총25년사 발간 편집위원 좌담회

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또 이것을 역사적 자료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라든가 어떤 행사의 명칭,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미리 1년쯤은 그런 자료 조사를 하고 1년쯤은 집필위원들께서 글을 쓰시고 하는 기간이었어야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했던 10개월의 시간이 생각해보니 집필위원들께서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은희 네, 맞습니다. 결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집필위원님들. 군포예총25년사를 쓰면서 재미있었던 점이나 또 새롭게 가치를 발견한 거라든지, 한편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남희 집필위원장님 많이 고생하셨지요. 예총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느라 애쓰셨는데 이번에 예총25년사 집필에 참여하면서 가졌던 소회나 이런 것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남희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셨던 분들이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을 해보니 예총과 8개 협회의 25년을 정리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더군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그리고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녹장을 부린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놓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계획, 부담감 등을 안고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었는데 우리가 좀더 찾고 좀 더 노력하면 오류를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행사명이나 정확한 연월일. 아직도 그 안에 오류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와서 그걸 새로 찾기에는 세월이 흘러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집필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각 지부의 임원진들이 계속 바뀌고 또 그분들이 어떤 강제성을 지닌, 또는 유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정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 임원진들도, 더군다나 최근에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분들은 역사를 모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강신웅 회장님께서 큰일을 하셔서 정말 좋은 족적을 남긴 것이구요. 어쨌든 이렇게 25년사가 정리가 됐으니깐 후에 회의를 거쳐서 지부에서 하는 행사의 정확한 연월일, 행사명, 대략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을 규정같이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강신웅 네. 예총이사회 때나 지부장단 회의 때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군요.



이숙진 총회 안건보다는 기타안건으로 올려서 정례 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남희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떤 때 보면 각 자료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정기총회 자료집 뒤에 보면 행사명 있잖아요. 그것의 날짜와 〈군포예술〉 뒤에 있는 캘린더에 나온 날짜가 다르고 또 각 지부별 팸플릿에 나온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더군요. 그게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떤 때는 신문기사에 나온 날짜도 다르더군요. 군포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시민문학에 군포문협리porter 부분에 그해 했던 행사명과 정확한 연월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지부에서도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은희 네. 정확한 기록의 중요성은 모든 집필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진옥 집필위원님도 특별히 힘든 점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이진옥 어떤 협회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연극협회 인데요. 지부장님 한 분이 이렇게 말아서 하시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참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생 지부인 사진협회, 2015년에 창립된 사진협회 같은 경우 저는 역사가 짧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단지 예총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활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1990년대, 1980년대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예총이 생긴 것은 25년이 됐지만 군포시의 예술인들이 훨씬 그 이전부터 싹을 만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25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밑바탕이 그만큼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라는 걸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라면 어떤 지부는 수록할 분량이 많고 또 어떤 지부는 적어서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이예요. 분량이 많은 지부 같은 경우 그게 그들의 역사거든요. 그 지부의 역사기 때문에 다 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율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은희 네. 그러셨군요. 각 협회마다 창립년도가 다르고 활동 범주도 다르니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은 무리

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명 집필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는지요.

박소명 사실 저는 그렇게 힘든 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마감일에 맞추어 부족해도 일단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교정보며 하려고 했는데 다들 조용하신 거예요. 완성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일단 마무리를 해놓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랜 역사를 기록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초기에 한 분씩 만나 인터뷰하고 기록해야 하는데 예술가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계속 안 만나주셔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안영숙 지부장님 같은 경우 끊임없이 만나주십사 구애(?)를 했는데도 너무 바쁘고 집안에 또 일이 있고 해서 못 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 가다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요즘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잘 못 알아보기도 하지만 어느 날 안영숙 지부장님과 비켜가는데 맞는 거 같아서 제가 불렀지요. “안영숙 회장님!” 하고요. 그랬더니 본인을 어떻게 알아보느냐고 놀라며 사무실로 오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지부장으로 일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셨어요.

이숙진 거기에 꽃혀있었으니 마스크를 써도 다 알아보셨던 거로군요.(웃음)

박소명 그렇죠. 뭔가 이야기를 듣고 써야하는데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다들 바빠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풀렸고,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돌이켜서 그렇게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쓴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문인협회가 다보니 예술인 하면 글 쓰는 사람들만 생각하다 다른 장르 예술인들의 세계를 알게 된 것이예요. 제가 맡은 연예협회나 국악협회 예술인들이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공연해온 역사를 보며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틀에 갇혀 나 이외의 세상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것이 조금 부끄럽고 새로운 예술 세계를 이해하고 시야가 넓어졌다는 생각에 좋았어요.

오은희 박소명 선생님은 군포예총 25년사 집필에

기획특집 | 예총25년사 발간 편집위원 좌담회

참여한 의미가 다른 누구보다도 크셨던 것 같군요. 예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셨으나...

박소명 네, 작년에 미술협회와 사진협회랑 같이 했던 협업프로젝트 ‘쓰고 그리고 줌인’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총25년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예술인들에 대해 좀더 많이 알게 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은희 저 같은 경우는 무용협회와 음악협회를 맡아 협회사를 기록했는데 아시다시피 무용협회는 양대승

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될 때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들여다보게 됐고 그러면서 협회의 어떤 갈등이나 피치 못할 사정 같은 것도 알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곳이 다 그렇듯 예술인들도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협회의 화합을 도모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더군요

최남희 다만 각 협회에서 지부장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집행부로 이관할 때 협회 회원명부나 회계서류만 넘겨주고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 자료가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부장님이 오랜 시간 무용협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술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게 참 좋았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다른 매체나 공연 팸플릿을 보면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25년사를 정리하며 현재 활발하게 공연을 하고 있는 김은희 지부장님의 역사를 뺀 나머지는 온통 양대승 지부장님이 이룩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공연의 규모나 수준이 국내 최고의 경지이고,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예술공연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또 음악협회의 수리공쿠르 역시 국내 유수의 콩쿠르로 자리잡기까지 많은 음악협회 선배예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가 그 뿌리

오은희 각 협회마다 사정이 다른 게 현실이고 하다 보니 우리 바람대로 그러지 못한 것도 있었지요. 특히 초창기에 예총의 역사가 길지 않았을 때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각 지부장, 또는 예술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개성이 다들 강하시다보니 하나로 화합하고 융합하는 게 쉽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임원 개선하며 생기는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구요. 예총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시기 한 시기 그런 일들을 극복해가며 8개 지부가 발전하고 예술인 개개인의 성취도 이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옥 네. 맞습니다. 역사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건 다들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술협회는 최남희 집필위원장님이 협회사 기록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상훈 사무차장님이 미술협회 사무국장을 거쳐 지부장을 오래 하셔서 꿰뚫고 계시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상훈 미술협회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웃음)

최남희 미술협회는 초창기부터 치열했습니다. 정관의 단어 하나 바꾸는 일도 회의를 거쳐서 하고 탈퇴 및 제명 등 신문기사에 난 자료를 보면 아주 심각한 일들도 있었던데요.

이상훈 초창기의 역사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부터 회원의 자격요건, 중앙회원과 지역회원 명단 정리 등 아주 많은 일이 있었지요. 가령 중앙에는 가입하고 군포미술협회는 회비를 안 내며 총회에도 안 나오고 해서 총회 정족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어요. 초창기 10년 가까이 아주 어려웠는데 제가 말으면서 회원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하여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회비도 잘 걷히고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지요. 미술협회사 기록하는 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려서 참고하시라고 했습니다.

오은희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큰일하셨습니다. 군포예술 편집위원인 이은영 문인협회 사무국장님은 예총사 집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2020년 군포문인협회 25주년 좌담회를 하며 자료정리를 해서 이번에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은영 네. 이것을 예감해서였는지 몰라도 군포문인협회에서 작년에 25주년 기념 좌담회를 했지요. 그때 초대 예총회장과 군포문협 회장을 역임하신 박현태 선생님께서 초창기 시절의 자료를 주셨어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소중한 자료라 그것을 그냥 돌려드리면 다시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에 모두 스캔작업을 했어요. 1995

년, 1996년 군포문인협회의 초창기 자료였는데 책 세 권으로 만들어 선생님께 한 권 드리고 한 권은 문협에 보관하고 예총 25년사를 간행한다고 해서 최남희 선생님께 드렸지요.

최남희 저는 처음에는 이은영 사무국장이 한 줄을 모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냈지 하면서 놀랐어요. 그 자료를 보니 초창기의 공문, 초청장, 월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은영 게다가 저는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대상자로 김동호, 박현태, 전현하 선생님을 인터뷰해서 초창기의 문협이나 군포예술인들의 현황을 잘 알게 되었고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은희 네. 이번에는 각 협회사를 기록하며 소소하게 재미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협회 전체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먼저 박소명 선생님 연예예술인 협회, 국악협회를 쓰시면서 기억나는 건 어떤 걸까요?

박소명 이번에 국민가수에서 이슬로몬이라는 참가자가 '집시여인'을 정말 잘 불렀는데 그 노래가 연예예술인협회 강신웅 회장이 참여했던 그룹 '이치현과 벗님들' 노래라서 더 관심이 갔습니다.(웃음) 예전에 그 그룹을 아주 좋아했는데 우리 강신웅 회장이 나오신 걸 몰랐네요.

이은영 아! 그러신 거예요. 저도 좋아했는데... 진짜 연예인이셨군요(일동 웃음)

이진옥 연극협회는 초창기 자료를 찾아보면 연극공연한 팸플릿이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아트홀 뭐 이런 공간에서 하다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 외국으로 진출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 군포에서 외국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마련하는구나, 해서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지난번에 제주 서귀포에 총과의 MOU 체결준비도 군포예총이 점점 밖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은희 이진옥 선생님 얘기에 이어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수리공쿠르가 어떻게 보면 지부 중에서도 행사 규모가 굉장

장히 크고 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수상자들이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명한 피아니스트나 성악가들 가운데 수리콩쿠르 출신들이 많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수리콩쿠르 출신이기도 하지요. 음악협회에서 수리콩쿠르를 글로벌한 대회로 성장시키고자 홈페이지를 영문으로도 구성해 놓았더군요. 외국팀을 한두팀 초청해서 참가시키기도 한대요. 수리콩쿠르가 국제적인 대회가 되기를 모두 바라고 있지요. 이런 걸 보면서 군포 예총 예술인들의 지평이 참 넓고 성과도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남희 초창기의 팸플릿을 보면 다양한 행사가 있었어요. 축제 때 주민 마라톤 대회도 개최할 정도였으니까요. 엄청난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뽀뽀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예산 없이 다 발로 뛰어서 후원금을 몇만 원, 몇십만 원 받아서 했던 일이에요. 97년도인가 마라톤 대회 때 예총 사무국에서 후원을 받아 티셔츠를 500장 준비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참가해서 다시 티셔츠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돌려보내기도 했단니까요. 그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려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지금은 있는 예산 쓰기도 힘들어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이진옥 25년 집필하면서 정말 옛날에 하셨던 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불모지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고 그렇게 하셨기에 오늘날 군포예총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은희 이번 군포예총25사가 그런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고 참 소중한 자료들을 문서화하고 기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신웅 회장님께서 임기 중에 25년사를 시작하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남희 네, 2008년 휴먼 앤 아트를 창간할 때도 그랬고 회장님이 뭔가 기록으로 남기고 출판물로 남겨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분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초창기의 이야기를 고증해주실 분들이 계시는 때 가능한 일이니 서둘러 한 작업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소명 연예협회가 하는 공연 '언제나 그 자리에' 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게 앞으로도 있으면 좋을 텐데... 쓰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항상 이마트 앞에서 기타소리를 듣고 노래를 들



을 수 있었을 텐데요.

오은희 군포예총 25년사를 정리하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 사람을 만나서 조사하고 인터뷰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어요. 아직 책자가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 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점, 미흡했다고 생

각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박소명 맞습니다. 조금 더 깊이 만나고, 더 자주 만나며 다양한 활동을 했던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지요. 논픽션 책을 준비할 때도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수십 권의 책을 읽고 그걸 씹어서 소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내가 온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다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남희 저 같은 경우는 좌담회와 지부 연혁을 했는데 거기서 지부의 역사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기도 했어요. 분명히 있었던 사실임에도 어떤 개인 간의 다툼이나 알력 등이 공식적으로 기록화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요.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제하고 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이 기록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갈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준다든가, 일신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완곡한 표현으로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순화해서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특히 좌담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참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거나 또한 그 자리에 안 계신 분이 자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빼고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신 분 중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나왔을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걸 안 썼지, 이런 의문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가급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개인에게 어떤 불쾌감이나 그런 걸 일으키지 않는 측면에서 기록을 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은희 네. 그러셨을 거예요. 예총25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있는 사실 그대로 써야 하는가, 혹은 써야 한다는 기록 그 이면에는 이 예총사 또한 누군가가 읽기 때문에 독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점 두 가지가 사실은 딜레마지요. 어디에다 더 초점을 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필위원들이 계속 고민을 하셨을 테고 저도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썼을 때 이걸 읽는 입장에서 꺾고럽고 힘들겠다는 지점은 그냥 담담하게 있었던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예총사를 정리하며 그 두 가지 지점이 힘들셨을 것 같아요

박소명 예. 저도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국약협회 자료에 보니 초창기에 동아리나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은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바꿔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진옥 네. 저도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예총사를 정리하며 예총 행사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예총이 되기를 바라구요. 협회와 협회가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협업도 많이 하는 군포예총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은희 그럼 끝으로 우리가 정리한 군포예총25년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군포예총이 더욱 발전하고 비상하기 위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최남희 우리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은 크지만 외부에서 보는 군포예총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면 좋겠어요. 우리 내부에서만 하는 예술활동이나 공연이 아니라 외부에 좀 더 알리고 군포시민들한테 군포예총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인식확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회원들이 예총 회원이라는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구요.

이숙진 어느날 ‘예술인의 밤’이라는 걸 따로 개최하여 모인다고 해서 예총회원들의 소속감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에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협회가 함께한 아트콜라보 협업프로젝트를 하며 가장 좋았던 것이 예총에 대한 소속감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세 지부의 회원들이 3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며 서로의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잖아요. 예총에서도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을 준비하고 예인 예술제 개막식 때 많이들 오실 수 있도록 각 지부 지부장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지부든, 전시지부든 두 개 지부, 혹은 세 개 지부가 융합하는 공동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많은 예술적 교류가 이어지면 군포예총이 예술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총사무실도 내집처럼 편안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웅 제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군포예총25년사를 발간하는데 앞으로 30년사, 50년사를 써내려갈 젊은 예술인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군포예총에서 청년예술가 발굴프로젝트로 ‘군포예총 스타트랩’을 할 거예요. 예총의 회원들이 점점 고령화되는 것을 보완하여 청년세대

예술인들의 유입을 꾀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군포예총의 앞날을 밝혀주고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예술세계를 펼쳐리라 기대합니다. 군포예총의 25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듯 앞으로의 역사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 집행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외부적으로는 시민들께 다가가는 군포예총이 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소속감을 더욱 높여 화합하는 예술단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은희 네, 군포예총25년사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가 가졌던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웅 회장님을 비롯하여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진행 및 글 오은희

